

#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3호 [루계 제2288호]

주제 103  
(2014). 8

15  
금요일  
음력 7. 20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과 평양육아원, 애육원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둑배형식의 초고층살림집을 바라보시며 외벽에 타일까지 붙이니 정말 멋있다고,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이 반영된 건축물,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구현된 건축물, 나날이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표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호동 5층 1호와 살림집밀단에 꾸려지고 있는 상점, 식당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을 돌아

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불수록 멋쟁이라고, 대동강건너에서 바라보면 더 멋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이 배합된 건축물이 로동당시대에 보란듯이 일떠섰다고 기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이 당중앙의 호소에 호응하여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답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시 부르는 곳

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가 제기일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결사판철하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고 나라의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시대를 주름잡는 오늘의 천리마 기수들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당창건기념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육아



원, 애육원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

의 혼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이 시작되자 얼마 되지 않지만 건축물꼴조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내부시공도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명당자리에 자리잡고 있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 사랑과 미래 사랑,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표시할 수 있게 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의 왕이라고 불러주시며

제일로 사랑하신 우리 아이들의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을 일떠세운다는 자각을 암고 당의 의도대로 평양육아원, 애육원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녀자축구경열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녀자축구경열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열경기에는 국가종합팀과 4.25팀이 참가하였다.

두 팀은 조선로동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축구기술을 날김없이 발휘하였다.

경기에서는 국가종합팀이 4.25팀을 8: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겼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종합팀녀자축구선수들이 집단주의 정신과 고상한 경기도덕품성, 완강한 투지를 보여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우리 식의 훈련방

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종합팀녀자축구선수들이 훈련에 더 큰 박차

를 가하여 앞으로 진행될 국제경기에서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삼천리에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자

사설

오늘은 조국해방 69돐이 되는 날이다.

주체 34(1945)년 8월 15일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일제를 반대하는 퍼어린 투쟁으로 항일대전을 승리에 이끄시여 조국을 찾아주신 것이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와 조국의 해방은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의 일대 사변이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민족의 비운이 절정에 달하였던 때에 20성상 백두의 삼한풍속에서 온갖 간신하고 다겪으시여 조국해방의 혁신적인 역사를 이루하신 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항일무장투쟁은 역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강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전쟁이었다. 국가적후방이나 청규군의 지원도 없는 최악의 시련속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신 것은 강철의 형장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은 민족사적사변이다. 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탁월한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일제의 100만대군을 헐락펴락하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민족의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 조작책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련석 회의를 소집하여 남북과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1970년대초 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시였다.

그리나 해방의 환희는 또다른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열의 비극으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 민족은 외세가 제멋대로 그어놓은 38°선에 의해 본의아니게 둘로 갈라섰다. 1945년 9월 『해방지』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겨레의 지향에 정면도전을 나섰다.

민족앞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심으로써 민족주체적력의 단합으로 조국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3대헌장을 구현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하시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였다. 혁신적인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적화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고 조국통일위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이룩되었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 있게 전진하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남조선에서 리명박 『정권』의 집권으로 엄중한 대전에 부딪쳤다. 북파 남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전면유린하며 통족대결에 혈안이 된 리명박 패당의 빌아적인 반공화국대결책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파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힘

에 걸친다.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전제 조선민족은 외세의 힘으로 조선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대변해줄수 없다. 북파 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분별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힘으로 조선민족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지지』를 청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제재』와 『공조』를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락물을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태에 국행된다. 북파 남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민족

공동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혁신기의 내외의 거朋友们对 경고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이 강행하려고

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최극단으로 치달고 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로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전제 조선민족은 외세의 힘으로 조선민족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련복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산물인 외세와 암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전면 중지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려는 공화국의 힘은 시종일관하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벌쳐나섬으로써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 것이다.

1945년 8월 15일은 역사철사로 결박되었던 조선민족이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버린 독립만세의 우뢰소리로 동해가 끊고 산이 진동한 날이었으며 조선의 열, 조선의 기상과 혈맥이 양출을 다시 만나 소생한 날이었다.

력사의 그 날로부터 어느덧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해방의 기쁨속에 남녀노소가 목놓아 부르고 부른 환호성에는 세월의 이기가 덮이지 않았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40여년, 나라를 잃어 민족의 존엄과 권리, 나중에는 말과 글, 이를 석자까지 빼앗기고 갖은 학대와 굴욕을 당하며 마가를 락엽처럼, 길가의 조약돌처럼 이리 쫓기우고 저리 짓밟히는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겨레였다.

망국은 누구도 원치 않았으나 국력이 약했던 우리 민족이 당한 슬픈 운명이었다.

당시 국왕이었던 고종이 조약 체결을 끌까지 반대하며 백성을 위한 의향을 들어야 한다고 하자 일제는 『군주제국』에서 『백성의 의향은 기피천만 한 일』이라고 하며 황제의 비준도 우세날인도 없는 날조된 약관문서를 세상에 공포하였다. 그것이 바로 온 겨레가 땅을 치며 나라잃은 설움에 목놓아울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망국의 한을 품고 자결의 길을 택하게 한 1905년의 『을사5조약』이었다.

외세에 의해 수난당하면서도 군대가 약하고 종대가 약해 산천도 사람도 피눈물에 젖고 『시일 야방성대곡』으로 강산을 허비던 해방전 조선의 비참한 모습을 놓

나라가 해방되어 근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국해방 기념일을 맞는 나에게는 일제에게 짓밟혔던 겨례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민족재생과 강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아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경모심이 밀물처럼 차오르고 있다.

민족수난의 그 세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애국의 길에 나서서 20성상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며 외세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의 위인상과 업적을 그리는 내 마음속에는 문득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파도치고 있다.

장백산 출기출기 퍼어린 자우  
압록강 굽이굽이 퍼어린 자우  
오늘도 자유조선 꽂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우  
...  
수령님의 만고의 업적을 칭송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전민족적송가로, 불멸의 혁명송가로 태여난 해방된 조국의 첫 기슭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

# 백두산의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고한 시인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펴젖은 곡성을 티쳤다.

수난과 질곡의 갑

갑한 어둠 만이 질어

가던 이 땅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민족재

생의 밝은 빛을 주시었

으니 이 나라의 동려온

해방의 아침은 그이께서

황일무장투쟁을 벌리신

백두산에서 밟아왔으며

온 겨레는 해방의 은인

수령님의 업적을 자자순

순길이 칭송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망국

노의 설음을 펴타게

체험 하시며 성장하신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아버지께서 쓰시던 벼루에

먹을 같아 『조선독립』

이라는 애국의 글벌을 새

기시었다. 겨사는 강대국

들이 작은 나라를 통정하

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

례를 알지 못하며 한 민

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

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

서만 보존하고 생취할수

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신

그이께서는 겨례의 힘을

묶어세워 민족해방투쟁을

위한 도선을 내놓으시였고

해방의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을

터뜨렸는데 있다는 선군사상도 밝

히시였다.

그이께서는 겨례의 힘을

묶어세워 민족해방투쟁을

벌리기

선을 독립할 애국의 맹세를 다

그때로부터 장장 스무해!

신 배두산청년장군의 혈전의로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헤치시

는 그 나날, 언제나 조국을 마

음속에 안으시고 왕재산, 보천

이 민족의 운명은 그이의 어깨우

에 무겁게 실리였다.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기어이 조

에 무겁게 실리였다.

그때로부터 장장 스무해!

신 배두산청년장군의 혈전의로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헤치시

는 그 나날, 언제나 조국을 마

음속에 안으시고 왕재산, 보천

보, 무산지구 등 조국땅 곳곳마

다에 해방전의 불길을 지펴올리

그때로부터 장장 스무해!

신 배두산청년장군의 혈전의로

항일의 혈전만리길을 헤치시

는 그 나날, 언제나 조국을 마

음속에 안으시고 왕재산, 보천

시에 전하고 있다.

사면팔방으로 악착스럽게 달려

일제침략군을 쥐락펴락하시며 승

전의 개를 높이 울리시였다.

신출귀몰하며 천변만화하는 조

선인민혁명군의 신묘한 전술파

전법에 일본육군의 『꽃』이라

고 하던 100만 관동군이 사시나

수기

## 겨레가 심장으로 러친 경모의 노래

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해방전 막별이군이었다. 평

양과 원산 등지를 떠돌이하

며 광산이나 철공소, 양잠

공장 같은 고역장에서 마소

처럼 일하며 생계를 연명했

다.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에

도 광포래로 지은 짐집을 헤

리에 차고 웨놈들의 철공소

에서 품을 팔아야 했던 아버

지였다. 웨놈들의 학정하에

서 장차 화가나 음악가가 되

려는 소망은 한갓 꿈에 불과

하였다.

아버지는 조국해방의 력사

적위업을 안아오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그려보며, 환

희의 인파에 끼여 평양공설

추를 내리는 백두산호랑이로, 우리 겨

례에게는 수호신이 되셨던 전설적영웅

이시였다.

수령님 백두의 눈바람, 바바람 다 맞

으며 찾아주신 새 조선이 있어 우리 겨

례는 자기 운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

이 되어 자주적인 긴 존엄을 향유하

게 되었고 후손대대로 참된 삶과 보람

찬 행복을 누리게 된것이 아닌가. 공

화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강국

으로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구쳐오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전변

들, 그것은 항일대전의 승리의 날대가

안아온 위대한 결실인 것이다.

이 땅에 흐르

는 승리의 력사

는 바로 우리

수령님 혜처오신

황일의 20성상에

시원을 두고있지

않는가. 개선문을 돌아보는 수많은 사

람들도 그려한 마음으로 이곳을 찾고

찾으리라. 항일대전의 승리가 있어 오

늘의 승리와 행복이 있듯이 우리 겨

례는 누구나 만복이 열린 대문으로 생각

하며 개선문을 찾았다.

그림을 마주하고 있으니 면 후날

에 가서도 우리 후대들이 간고하였

던, 그리면서도 승리와 영광으로 빛

나는 항일의 날과 달들을 가슴에 새

기고 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가자, 개선연설을 하시던 수령님의

그 음성이 봉우리마다, 나무마다 습배

여있는 모란봉기슭으로, 그이의 항일

대전의 승리의 력사가 아로새겨져있는

개선문을 돌아보자.)

나는 땅에 손목을 잡고 개선문으

로 향했다.

리경진

무 떨듯 전율하였다.

김일성장군! 그 이름도 빛나는 위인의 존함은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겨례의 가슴속에 안겨든 해방의 서광, 인생의 봄빛이었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한 승리의 기치였다.

조국해방은 수령님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빛발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 하심으로써 이룩된 민족사적위업이다.

도tan에 빠졌



# 8. 15 해방을 맞던 환희와 기세로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환호성이 삼천리강산을 친감하였던 감격의 그날로부터 어언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끌끌 내고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혁사적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은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조국해방투쟁을 이루하던 절세위인이나 김일성대원수님의 애국현신의 자우자육을 가슴뜨겁게 둘러켜보고 있다.

3.1만세의 함성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의문과 『상해림정』의 우국지심도 일제의 야만적인 총칼통치에 대한 폐와 좌절을 면치 못하던 암담한 시기에는 그처럼 바른민족생의 광활로운 세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풀에 지니시고 간고하고 혼란한 항일대전을 승리으로 이끄시여 우리 겨레는 조국해방투쟁의 최후승리를 이루신분은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 이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풀에 지니시고 간고하고 혼란한 항일대전을 승리으로 이끄시여 우리 겨레는 그처럼 바른민족생의 광활로운 세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백두산 출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피어린 혁사와 조국해방의 위대한 업적은 반만년민족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혁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고 세대로 여러번 바뀌었다.

하지만 애국선열들이 항일성전에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치며 그토록 갈망하였던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국의 남반부에서 일제의 강점 40여년이 미제의 강점 70년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해방, 민족의 자주권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으

며 외세가 강요한 장기간의 민족분렬로 하여 우리 겨레는 참을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겪고 있다.

해방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교두보로, 국동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락시킨 미군은 오늘 『아시아평양중시전략』을 내들고 전선반도를 타고 앉았으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폐련파 군사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대와 굴종에 물쳤은 혁대 남조선의 친미보수 『정권』은 미국의 물적 대, 해수인이 되어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며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온 겨레의 절절한 혐오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분별과 고통의 화근을 제거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해방후 폐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불법강점하여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도 미국이며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을 한 사고가 가로막고 있는 주되는 외세도 다른 미군이다.

동서행전이 종식된지도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주인노릇을 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구실로 없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속히 끝장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의 극복』은 바로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지배를 끝장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의 암적존재인 미국이 남조선을 타고앉아 모든것을 좌우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북남관계를 궁극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없고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루할수 없다.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떤 결정

등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비극적 현실을 본다면 분노에 땅을 치며 저주할 것이다.

그 어떤 역경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네원이다.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가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민족의 분별과 고통의 화근을 제거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루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남조선당국에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2.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해방후 폐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불법강점하여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도 미국이며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을 한 사고가 가로막고 있는 주되는 외세도 다른 미군이다.

동서행전이 종식된지도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주인노릇을 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구실로 없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속히 끝장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의 극복』은 바로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지배를 끝장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의 암적존재인 미국이 남조선을 타고앉아 모든것을 좌우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북남관계를 궁극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없고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루할수 없다.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떤 결정

도 내릴수 없는 남조선위정자들의 처지에서 『남파 북이』 민족이라는 통일시대에 판연 가능할 수 있는가?

남조선당국은 세계와 년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철수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 조정정책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품에서 떨어져나와 성스러운 민족의 대오에 들어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이행해나갈것을 촉구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원인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대북압박방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남합의가 부족해

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온 민족의 종의가 반영되고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실천에서 정당성과 생활력이 파악될 힘을 품어나갈것을 촉구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통일을 위한 협력과 사업을 확장하는 일이다.

3. 북남사이에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통일을 위한 협력과 사업을 확장하는 일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 북남사이에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통일을 위한 협력과 사업을 확장하는 일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로씨가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회생물로 악용된다면 당국사이에 합의를 열변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통일에 관심이 있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무엇을 자꾸 나들이거나 이미 이룩된 북

남합의를 부터 인정하고 존중하며 리행하는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6. 15시대에 활성화되어온 각 분야별, 분파별 협력교류기구들이 재가동된다면 구여해 북남당국이 마주앉아 다시 협력의 힘을 틀고 느느 시간과 노력은 허비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당장이라도 화해와 단합,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이나 철도도로련결, 사회협력사업도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다 반영되어있는 문제로서 선언들이 리행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로씨가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신뢰』니, 『평화공원』이니 하는 말에 앞서 행전과 동족대결의 산물인 콩크리트장벽부터 해체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의 활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15

남조선인터넷홈페이지 《구국전선》(http://aindf.com)에 《구국전선》편집국 론단 《보수집권세력의 《정통성》 타령을 론함》이 실리었다.

글 전문을 소개 한다.  
수수천년 하나의 강도에서 한파를 이어오다가 20세기 중반기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근 70년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역사는 하나의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는가.

자주로 존엄멸치며 민족의 넋과 슬기와 지혜를 체현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활짝 풀어워나가고 있는 북이 조선민족의 정통성을 체현하고 있다는 것은 론의의 여지도 없는 정설이다.

민족의 정통성이 그 민족의 형성과 존재와 발전의 전행정에 면밀히 계승되어온 역사적 전통이라고 할 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의 핵은 남달리 강한 자주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겨레는 남의 노에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를 가지었기에 수많은 외침과 압박을 물리치며 반만년의 유구한 혁력을 빛내어온다.

혁사는 민족자주정신이 강할 때 나라가 강성하였고 민족자주정신이 병들 때 민족의 운명이 수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의 강성과 고려의 문명으로 이름높던 우리 민족이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봉건통치자들에 의해 자주정신이 병들면서 무기력해지고 결국 일제에게 나라를 먹히우는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에서 무장을 높이 드시고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도 살았다고 민족의 넋을 흘러들어 깨우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혁사적 위업을 이루 하시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민족자주정

# 보수집권세력의 《정통성》 타령을 론함

신의 최고정화인 주체사상의 보습으로 새기를 이어 찌들어있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풍토를 깊이 깨끗이하고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를 이어 주주정치를 굳건히 실시하신으로써 공화국은 그 어떤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도 끄떡없는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멸치고 있으며 북은 조선민족의 기상이 차넘치고 민족성이 활짝 풀어나는 민족의 본향으로 존엄과 영광을 떨쳐고 있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지굴레를 벗어나자 미국의 식민지명에 빠져나온 이남에서 《광복절》을 기념한다는 것 자체가 맘이 안 되는 판인데 《정통성》 타령까지 올려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해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사생아에 지나지 않는 이남 《정권》은 애초에 그 어떤 《정통성》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정권 아닌 《정권》이다. 이남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이 《상해림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이어나온 것이다. 《정통성》은 아무런 인연도 없다.

더우기 《상해림정》의 법통인 인장 역시 김구자신이 위대한 주석님을 우리 민족의 유일한 평수, 해방 조선의 태양으로 우리를 칭송하며 그이 앞에 정중히 바치겠다고 내놓았던 것이다.

《상해림정》의 법통은 친미 사대국집단에 의해 계승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사대국 노동자들에 의해 오히려 사멸되었다. 이 남의 《초대대통령》이라고 하는 리승만으로 말하면 미국에 가 있을 때인 1918년에 벌써 자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밝힌 천일에 국적이며 《위임통치론》과 《자치론》을 들고나온다. 《상해림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 반년도 못되며 쫓겨난 추악한 인간쓰레기이다.

《단독정부》가 조작될 당시 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군부의 유효에는 《간도도별대》의 간판을 쓰고 활약 유격대와 반일 독립군을 악착스럽게 《토벌》하는데 앞장선 김석원, 정일권, 백선업, 리옹준, 리종찬을 비롯한 천일에

의 형태를 띤 하나님의 독립운동단체이며 그것도 주류가 아니라 지류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에 장개석 국민당 정부도 《상해림시정부》를 일종의 대일교전단체로서 《사실승인》이라는 외교조치로 통지했을 뿐 정부로서는 해당 초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극악한 친일때 국의 무리들이 항일, 독립을 표방한 《상해림정》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떠드는 것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공공연한 외곡이고 김구를 비롯한 반일에 국지사들에게 대한 모독이고 우통이다.

특히 괴뢰당이 1948년의

《단독정부》 조작 날을 《건국절》

로 제정해야 한다느니,

《해방후 남쪽에 단독정부를 세운 것이 축복》

이라니 뛰어는 것이야말로 민족분열의 고통과 슬픔 속에 풀어놓는 모독이고 우통이다.

주지 하다 싶이 일제를 대신한 미군의 이남강점으로 시작된 민족분열의 비극은 친미 사대국 세력의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하여 민족의 통일적 발전에 더욱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국로민진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남민족의 진국지향에 의해 각자에 수립된 민족위원회들을 강제 해산하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폐쇄하였으나 수많은 애국민족을 체포, 투옥, 학살한 사대국의 무리들이 미제의 각본에 따라 불법으로 조작한 것이 바로 박근혜 집권세력이 《정통정권》으로 내세우는 리승만의 《단독정부》이다.

자주적 통일 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단선단정》을 반대하여 분기한 제주도 봉기자들을 비롯하여

국노들이 들어앉았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극악한 친일때 국의 무리들이 항일, 독립을 표방한 《상해림정》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떠드는 것은 역사의 진실에 대한 공공연한 외곡이고 우통이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구까지 암살함으로써 《정권》의 존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그리고 《상해림정》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면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밭을 불이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분열시켰으며 나중에는 그 지도자였던 김

# 어서 오라 사람들을 부르는 봉수포해수욕장



무더운 여름날 한껏 달아온 물을 식히는데는 해수욕만 한것이 없다. 하다면 바다와 멀리 떨어진 평양시민들이 해수욕을 즐길수 있는 곳은 어디일가.

물론 송도원이나 마전, 시종호와 같은 동해의 명승지들도 있지만 서부지역에 위치하고있는 평양에서 그곳까지 가자면 차를 타고 오래동안 가야 한다.

거리가 그다 멀지 않으면 서도 해수욕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곳으로는 서해지구에 자리잡은 봉수포해수욕장만 한것이 없다.

평양에서 떠나 남포시에 있는 웅장한 서해감문을 통하여 황해남도 은률군을

지나 좀 더 가느라면 파일군 봉수포라는 곳에 이르게 된다.

물의 머리와 같이 묘하게 생겼다고 하여 에로부터 봉수포라 불리워온 이곳의 서쪽바다기슭에 해수욕장이 자리잡고있다.

언제부터 이곳에서 해수욕을 하였는지는 잘 알수 없지만 조선봉건왕조 말기 부자들이 기생들을 기고 판광을 하였다는것을 보면 떠 오래 전부터 봉수포가 명승지로 이름났었다는것은 분명하다.

맑고 잔잔한 물, 넓게 펼쳐진 백사장, 푸른 소나무 등이 울창한 수림을 이룬 이곳을 보느라면 마치 동해의 명승 송도원이 그대로 옮겨온

듯 한 감이 든다. 봉수포는 해수욕하기에 매우 좋은 충분한 자연자리적 조건을 갖추고있다.

원래 조수력 차가 매우 심한 곳이 조선서해라고 하지만 이곳의 밀물과 썰물차이는 이상하리만치 심하지 않으며 물이 얕고 물온도가 해수온에 알맞출뿐아니라 바다밑의 물도 느린다. 게다가 북서쪽으로 약 7km 멀어진 곳에 초도가 자리잡고 있어서인지 해마다 일군 하는 해일페페도 거의나 입지 않는다고 한다.

너도나도 바다물에 뛰어들어 창파를 헤아르며 한껏 달아온 물을 식힐 때 잔잔한 물결이 끝에는 금모래불에

많은 평양시민들과 남포시와 황해남북도 지어 개성에서까지 각계층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 준다. 봉수포해수욕장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7월초부터 9월까지 하루에만도 수천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한다. 특히 삼복철을 비롯하여 무더운 여름철에는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인민의 웃음소리 끝없이 넘쳐나는 봉수포해수욕장,

오늘도 좋지만 폐일은 더욱 홀륭하게 모으며 봉수포해수욕장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로 매일과 같이 홍성이 고 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 그 은정 전하는 인민의 문화 휴식터

을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편의를 위해 대동강으로 오가는 려객선도 갖추어주고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 이시였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봉수포해수욕장에 깃든 감동깊은 일화를 전해들으며 눈시

을 때 아무리 금광에서 천만 금이 나온다고 하여도 묵향산의 경치와 비길수 없고 조국의 명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단호히 헤

평하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모습을 빼는것 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한다.

해풍이 신들선들 불어오는 바다에서 세 손으로 잡은 조개로 입김을 후—후—

작년에는 하루동안 왔다갔었는데 안해와 딸이 어찌나 서운해 하던지 올해에는 아예 이를동안 있을 계획을 하고 왔다.

이곳에서 이를동안 해수욕을 하였는데 힘이 막부부씩 솟는다. 돌아가서 더 많은 일을 하여 내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해수욕장의 이모저모  
기나긴 여름밤도 여기 봉수포해수욕장에서는 짧기만 하다.

### 《천하별미》

#### 조개구이와 어죽

봉수포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제일 맛나는 음식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조개구이와 어죽이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것이 해수욕을 하다가 백사장에서 조개도 굽고 어죽도 쑤어먹는 멋이야말로 별재 미이다.

금방 잡은 크고 생신한 조개를 모닥불로 달군 시뻘건 구이판에 올려놓으면 칙—칙—소리와 함께 입을 쪘을 때 멀린 조개들이 떨어진다.

물게몽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천막안에서 저녁준비를 하는 너인들, 정다운 칼도마소리와 함께 음식끓이는 냄새가 사람들의 기분을 흥뜨게 한다.

갈매기 날아에는 해변가에서 철썩이는 파도소리를 노래소리처럼 들으며 『거 맛 참 좋다』 하며 맛나게 음식을 드는 멀을 어찌 변화한 도시생활에 비길수 있으랴.

조개나 굴을 바다물에 씻어 가마에 두고 뚝끓인 후 쌀과 함께 죽을 쑤느라며 구수한 그 냄새에 절로 군침이 나는것을 어쩔수 없다.

입김을 후—후— 불며 저마다 끔뻑기를 청하는 모습이야말로 이곳 해수욕장에서 볼수 있는 즐거운 풍경이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울을 적시군 한다.

언제인가 봉수포해수욕장의 끝단에서 건설재료로 쓰이는 불돌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취하였으면 하는 일군들의 제기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건설재료라고 하여도 봉수포의 홀륭한 경치에 조급이라도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고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일군들은 해방직후 묘향산에서 일제가 운영하던 금광을 계속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한다.

언제인가 봉수포해수욕장은 세워진

수영장에서 100m, 200m씩

생생 혜엄처나갈 때 나는

서 재미나게 놀던 일들을

자랑도 하고 또 학급동무

유쾌한 전막생활

기나긴 여름밤도 여기 봉수포해수욕장에서는 짧기만 하다.

작년에는 하루동안 왔다갔었는데 안해와 딸이 어찌나 서운해 하던지 올해에는 아예 이를동안 있을 계획을 하고 왔다.

와불수록 너무도 마음에 들어 떠나고싶지 않다.

평양의 문수물들이장에

물로 놀아가면 이곳에

해수욕장의 이모저모  
기나긴 여름밤도 여기 봉수포해수욕장에서는 짧기만 하다.

주체82(1993)년 몸소 이곳을 찾으시여 파일군앞바다에 해수욕장을 더 잘 꾸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평양시민들이 와서 휴식하게 하면 좋

을려놓아야 한다고, 여름에 제일 더